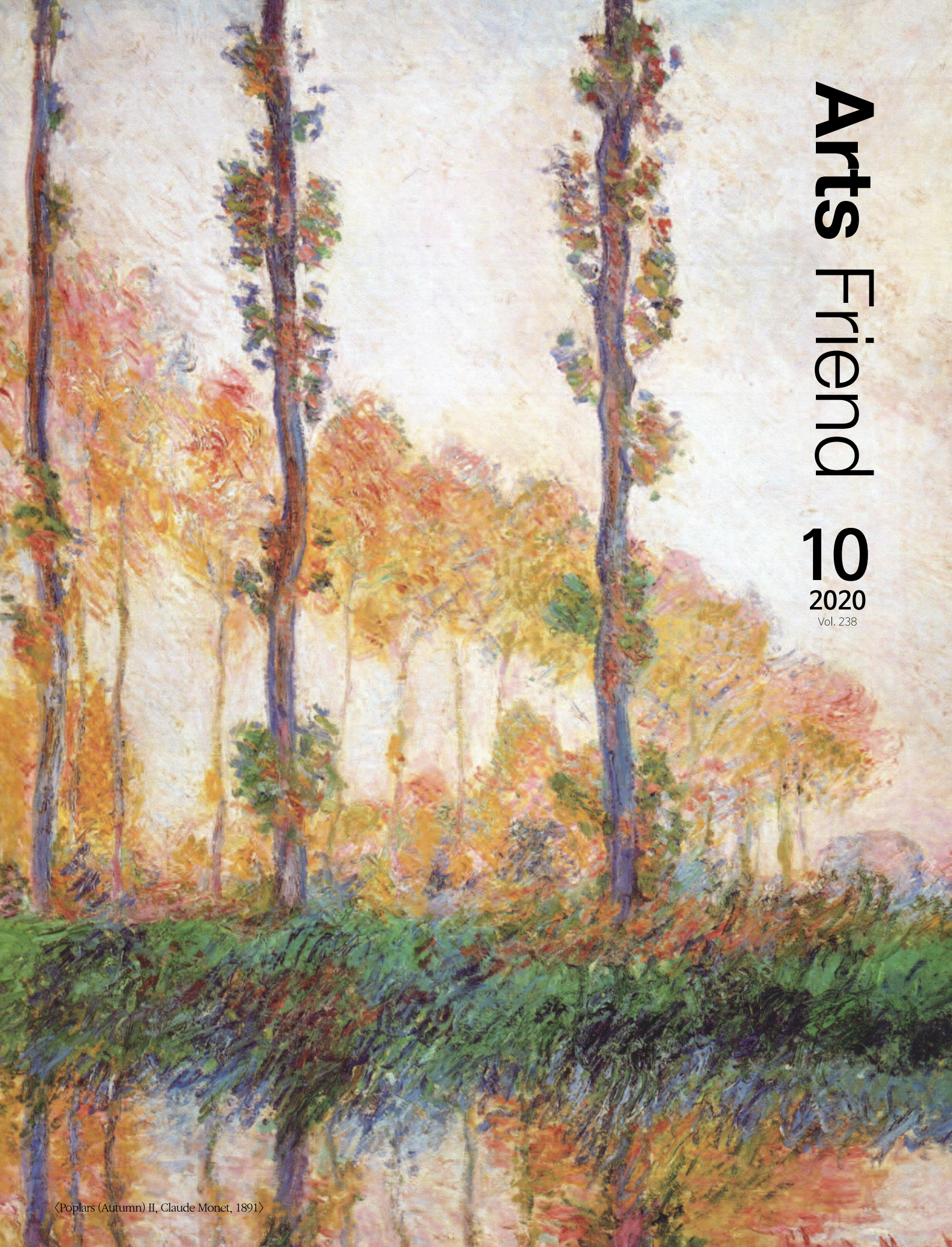


Arts Friend

10
2020
Vol. 238

〈Poplars (Autumn) II, Claude Monet, 1891〉

Contents

Exhibitions

기획전시 04
뉴 미디어 樂

Culture Contents

슬기로운 인턴생활 08
청년 인턴 이야기

회관 유튜브 홍보 10

뉴 미디어 樂

청년 인턴 이야기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20년 10월호 통권 238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남구 번영로 200(달동)
발행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
기획·편집 홍보마케팅팀 T.052)226-8241~2
디자인·제작 시냇가에심은나무

Arts & Story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18 12
문화보국의 한 평생 위창 오세창

뮤지컬 '킹키부츠' 16
실화가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거쳐
무대로 환생하다

커뮤니티 아트 7 20
장식보다 사용을 위한 예술

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17 24
어느 시대의 구애? Me too?

미학의 눈 - 작품해석과 감상 7 28
환유로 엮인 이미지 망

댄스 뮤지컬 이야기 32
'춤'으로만 만들다

뮤지컬 '킹키부츠'

Information

시책홍보-아시나요? 36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10월 공연 · 전시가이드 38

공연일정 40

전시일정 42

울산지역 공연 & 전시 정보 44

유료회원 특별혜택 45

유료회원 가입 안내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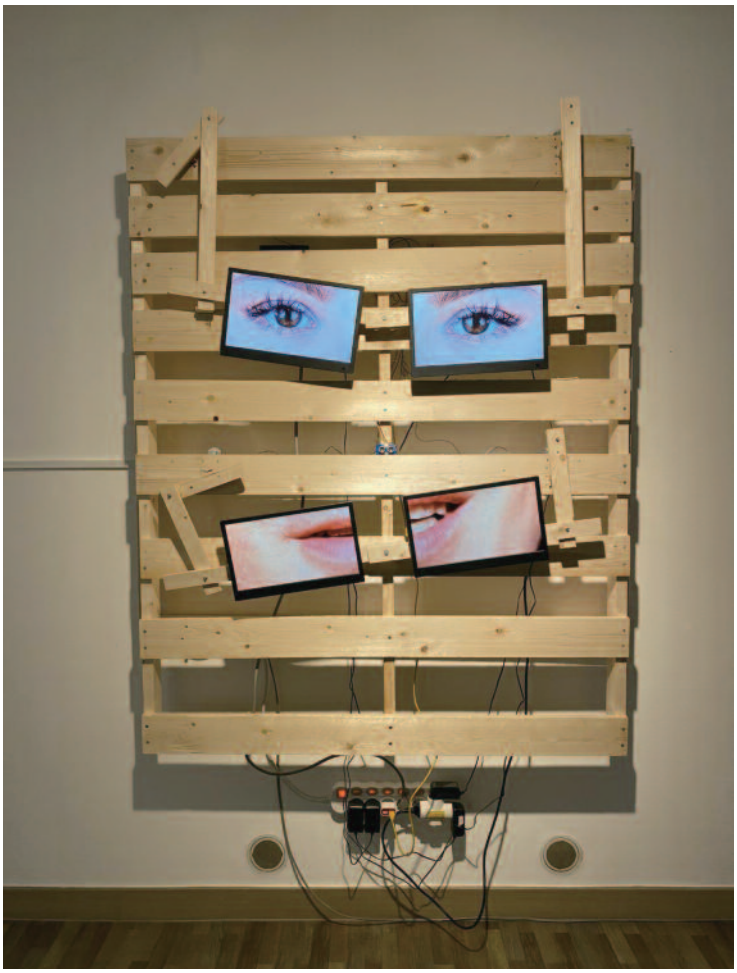
협약점 이용방법 47

댄스 뮤지컬 이야기

뉴 미디어 樂

2020. 10. 15.(목)~10. 24.(토), 10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표정안무장치 〈김혜인 作〉

제페토의 꿈 〈노진아 作〉

"첨단 기술과 예술이 만나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의 현대미술"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초청기획전시 「뉴 미디어 樂」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온라인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시대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과학과 예술이 융합되어 발현되는 미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첨단화되고 진화된 새로운 형태의 현대미술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권 선 作〉

모나리자 폐허 〈이이남 作〉

숲, 가시 그리고 비디오 〈이현정 作〉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급성장이 가져온 예술계의 변화는 다양하다. 새로운 가능성인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렉티브, 키네틱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예술작품들로 작가들이 시대의 경험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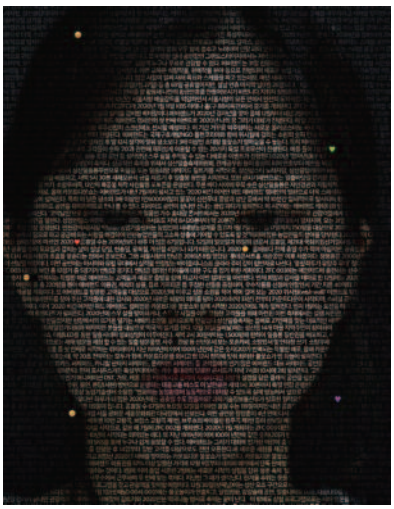
국내 미디어 아트를 대표하는 이이남, 홍성대를 필두로 하여 권선, 김해인, 노진아, 이재형, 이현정, 조세민, 박종영 작가가 참여하며, 관람객이 작품에 직접 개입하거나 참여하여 예술적 경험을 확장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전시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의 추이에 따라 관람객에게 오프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10월 24일 까지 열린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울산시민이 글로컬 문화를 리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미술의 이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은 물론 지역에서도 세계적인 작가의 예술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문화향유 질을 높이고자 한다. 관람객의 고정되어 있던 틀을 깨고, 시·지각현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보기 드문 전시에 울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란다.

전시개요

전 시 명	뉴 미디어 樂
기　　간	2020. 10. 15.(목)~10. 24.(토), 10일간
장　　소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전시형태	온라인 전시
전시내용	영상, VR, 인터렉티브, 설치 등 미디어 작품 총 20점



Face of city 〈이재형 作〉

Sea border 〈홍성대 作〉

하지만 희붐한 춤사위 〈조세민 作〉

Marionette 7 〈박종영 作〉

청년 인턴 이야기

회관에서는 '코로나 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인턴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청년인턴들은 공연 제작과정,
공연 소개 영상들을 재미있게 촬영하여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고,
톡톡튀는 다양한 영상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요?

안예림 (23,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휴학)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 휴학 중인 안예림입니다. 현재 예술회관 인턴과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보조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외부 동아리, 대구단편영화제 영상팀, 또는 지인들과 함께 여러 영상작업을 해왔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연하는 것도 좋아해서 출연욕심도 늘 갖고 있답니다.

청년인턴 지원동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강사 일을 하던 중에 센터 직원 분께 울산에 영상 관련 인턴 제도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공자로서 경험을 쌓을 기회라고 생각하여 주저 하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양한 공연을 주로 하는 곳이다 보니 재미있는 공연도 함께 즐기면서 일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인턴이란?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다양한 직업군들을 섭외 하고 생각한 기획대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와 이게 되네?' 하면서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직장에 들어가면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인턴을 할 때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임하면 안 될 일이 없겠죠?

앞으로 우리들의 이야기

안예림
임예솔
최서원

현재 회관에서 주로 영상제작과 홍보를 합니다. 기획부터 시작해서 촬영, 편집 까지 자유롭게 상상해나가며 만들고 있습니다. 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을 홍보하는 영상을 주로 기획 했었다면 코로나로 휴관중인 현재는 회관 내에서 할 수 있는 좀 더 창의적인 콘텐츠를 기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열심히 연구 중이랍니다.

"What is in my bag"이라는 울산시립예술단원들의 가방 속 아이템을 탐구해보는 콘텐츠와 "인턴들이 찍는 회관 브이로그"라는 코로나 시대에 회관을 탐구하는 브이로그도 유튜브 "울산문화예술회관"채널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셋째 주에는 '머쓱한 서원씨의 안무 도전기' 라는 (인턴)서원씨가 무용에 도전해보는 콘텐츠를 촬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무 도전기뿐만 아니라 성악, 악기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인턴들이 도전해 볼 예정이구요. 또한 회관 사람들의 패션을 살펴보는 콘텐츠 등이 계획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청년인턴 영상들을 회관 유튜브 채널 내 "슬기로운 인턴생활" 재생목록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서원 (29, 울산대 전기공학 졸업)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울산문화예술회관 청년인턴 최서원이구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영상과 음악에 관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청년인턴 지원동기

제가 지금 밴드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업로드할 목적으로 팀의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영상 촬영과 편집을 독학하고 연습해보고 했었어요. 이 청년인턴 모집 공고가 올라왔을 때는 청년예술인력양성 이라는 타이틀로 올라와서 다소 기술이 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었고 지금도 열심히 배우는중입니다.

나에게 인턴이란?

우연히 공고를 보고 고민을 많이했습니다. 사실 저는 취업준비생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준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지만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인턴 2분과 함께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구요. 조금은 나태해져있었던 제가 이번 인턴생활을 계기로 "열정"이라는 것은 다시 느끼게 되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임예솔 (23, 동의대 피아노전공 졸업)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울산문화예술회관 청년인턴 임예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상에 관심이 많아 취미로 하고 있다가 대학생 때 외부 미디어팀에서 영상 훈련을 받게 되었고, 팀장을 맡아 팀을 이끌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울산과 부산에서 촬영, 편집 디자인,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영상 프리랜서로 종사하며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지원동기

저희 아빠께서 인터넷에 뜬 공고를 보시고 추천을 해주셨고, 예전부터 저의 전공인 '음악'과 잘 할 수 있는 일인 '영상'을 융합하는 일을 하고 싶었기에 이 인턴생활을 통해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인턴이란?

무궁무진한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했던 다양한 기획들을 직접 영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도전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 속에 약간의 자유로움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니 젊음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문예회관이 전하는 명품공연 지금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YouTube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연·전시 축소 운영에 따라 울산시민들의 문화갈증 해소 및 지친 일상에 활력을 드리고자 회관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공연·전시**를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은 회관 홈페이지 상단 온라인콘텐츠를 클릭하여 보실 수 있고, **유튜브(채널명: 울산문화예술회관)**를 통하여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고 재미있는 공연·전시 작품을 계속해서 업로드 할 계획이오니 많이 감상하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공연·전시 제공 목록

- **시립예술단 우수 레퍼토리 공연** : 우리소리 판타지 외 12건
- **온라인 전시** : 문화예술회관 소장품전, 한국화 100년 특별전
- **기획공연** : 뒤란, 울산아츠스토리 온에어, 방구석VR
- **슬기로운 인턴생활** : 월간『울문예』 8월호 등

유튜브 QR코드

방구석 VR
객석보다 더 생생하게 집에서 즐기는
360° VR 공연!

수요열린예술무대
뒤란
다시보기

ULSAN
ARTS
STORY
ON-AIR
2020. 7. 25. 토 17:00

문화예술회관
소장품展
4. 17.(금) ~ 5. 3.(일) ,17일간
제1,2,3전시장

한국화 100년
특별전
2020. 5. 22(금) 6. 13(토)

희망을
전하는
음악편지
2020. 5. 26.

만족도 200% 놓쳐선 안될 !!
울산 공연 & 전시
8월호

2016. 07. 28(Thu) PM 8:00
우리소리
판타지

크레인의 향기

수작

2019
처용, 두드리다

울산아리아
크레인의 날개
DEC
06

G. Verdi
LA TRAVIATA
라 트라비아타

JAZZ in
Ulsan
2018
2018. 5. 24.(목) 8 PM

Cinema
Classics
2018. 10. 16.(화)

Les
Misérables
2019. 7. 11.(목) 19:30

2020 신년음악회
합창환상곡
& C장조 미사
2020. 1. 17. Fri. 7:30PM

2019 교향악축제

호로 읽는 한국미술사 18 | 이인숙
『석재 서병오 필묵에 정을 담다』 저자

문화보국의 한 평생 위창 오세창

독립운동가, 미술사학자, 서예가, 전각가 오세창의 묵란

독립운동가로 위상이 드높은 오세창(1864-1953) 선생이 우리나라 서예사와 회화사를 연구한 미술사학자이자 서예가, 전각가인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세창 선생은 기미년 삼일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고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 8개월 감옥살이를 했다. 이후로도 일제 강점기 내내 친일하지 않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살면서 그들의 회유, 협박, 사찰, 고문 등의 강압을 견뎌내는 일, 또 스스로의 회의나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은 국내 민족 지도자들 중 끝까지 실절(失節)하지 않은 인물이 많지 않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광복 후 점령군인 미국 군대의 군사 통치시기를 겪고 1946년 8월 15일 일제에 빼앗겼던 대한제국 국새를 미군정으로부터 돌려받을 때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때라 국민을 대표해 오세창 선생이 인계 받았다. 돌아가신 후 1962년 3월 1일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오세창 선생은 16세 때인 1879년 역과에 합격하고 사역원에서 관직을 시작해 박문국 한성주보 기자(25세), 만세보 사장(43세), 대한민보 사장(46세), 서울신문사 사장(82세) 등을 지낸 언론인이었고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등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을 이끈 개화운동가, 개혁사상가였다. 오세창 선생까지 8대가 중국어 역관을 지낸 가문이어서 국내외 정세와 외국문물에 밝은 환경에서 자라 '개화'와 '독립'이라는 근대사의 민족적 대명제에 앞장 설 수 있었다.

오세창 선생은 구십년의 생애를 통해 의미 있는 발자취를 많이 남겼지만 한국미술사 연구의 개조로서 누구도 넘어서기 어려운 불후의 업적을 남겼다. 아버지 역매 오경석(1831-1879)으로부터 내려온 가학(家學)과 가품(家品)을 잘 계승해 대물림하였기에 가능한 결실이었다. 아버지 오경석은 젊은 시절부터 서화의 감상과 수장에 취미가 있어 역관으로 수 십 년 청나라를 드나들며 서화, 금석문 탁본 등을 모았다. 외아들인 오세창은 아버지가 모은 국내외의 풍부한 컬렉션을 물려받아 안목을 높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서예가와 화가에 대한

오세창, 〈묵란〉 1937년(74세), 종이에 수묵, 20×45㎝, 개인 소장

기록 자료를 집대성하는 작업에 착수해 1917년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을 탈고한다. 일제의 강제 병탄 후 칩거하며 우리나라 서화의 역사를 정리하고 보존하려는 일념으로 이룬 업적이었다. 나라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근역'이라고 했다.

『근역서화징』은 『삼국사기』에서부터 조선시대 문집에 이르기까지 274종의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펼쳐보며 서예가, 화가에 대한 언급을 일일이 찾아내고 이를 발췌해 총 1,117명에 대한 기록을 모은 방대한 내용이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착, 우리 고유의 미술 전통에 대한 존중, 우리 민족의 앞날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세창은 서예가, 전각가로서도 근대기 서화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1918년 서화협회를 창설한 발기인이자 협회의 고문으로 서화계 현장에서 줄곧 활동했다. 그러나 오세창의 그림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버지 오경석도 매화를 잘 그렸고, 오세창의 안목이나 필력이라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림에는 그다지 손대지 않았다. 〈묵란〉은 희귀한 오세창의 그림 중 한 점이다. 화제는 이렇다.

정축하(丁丑夏) 위(爲) 곽인계(郭仁契) 촉(屬)

고정사운(高情似雲) 고상한 정취는 구름과 같고
낭회약월(朗懷若月) 깨끗한 마음은 달과 같다
화신당춘(和神當春) 화창한 기운은 마땅히 봄철이요
청절위추(淸節爲秋) 맑은 절개는 가을이어라

칠십사수(七十四叟) 오세창(吳世昌) 도(塗)

앞 쪽에 날짜와 이 작품을 부탁한 사람의 이름을 먼저 써 놓고, 부채의 둥근 바깥 쪽 테두리를 따라 4언 4구 16자를 전서로 연이어 한 줄로 쓴 다음 자신의 나이와 이름으로 서명했다. 화면의 중심이 글씨에 있는 것을 보면 난초는 제일 마지막에 그렸을 것 같다.

이렇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을 화제의 앞과 뒤로 나누어 놓은 것은 그림의 경우 매우 드문 쌍관(雙款) 형식이다. 두 폭으로 쓰는 서예 대련에서 오른쪽 폭에 누구누구에게 준다는 내용을, 왼쪽 폭에 주는 사람을 나누어 협서(挾書)하는 형식과 유사하다. 오세창이 서예 대련의 쌍관 방식을 부채그림에 적용한 것 같다. 그림과 글씨 중 글씨의 비중이 더 크고 난초는 잎이 5줄기, 꽃이 2송이로 간결하다.

화제시 앞 쪽에 주문쌍원인 〈한운(閒雲)〉이 찍혀 있고 제일 끝에 〈오세창인(吳世昌印)〉, 〈위창(韋倉)〉이 찍혀 있다. '한가할 한(閒)'은 오세창이 좋아한 글자이다. 한도인(閒道人)으로 호를 쓰기도 했는데 그의 전용 인전지(印箋紙)에 '한도인'이 인쇄되어 있고, 사용한 인장 중 〈한도인〉, 〈한도인묵희(閒道人墨戱)〉, 〈한인묵취(閒人墨趣)〉, 〈한불한인(閒不閒人)〉, 〈한혜인(閒兮人)〉, 〈한중담(閒中淡)〉, 〈반일한(半日閒)〉, 〈한공부(閒工夫)〉, 〈야한(也閒)〉 등이 보인다.

틈이 있어야 생각이, 예술이 무르익을 수 있다.

간송미술관의 전신 보화각

훌륭한 컬렉션이 이루어지려면 컬렉터의 열정, 자본, 안목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모은다는 것은 수집하는 대상에 대한 강력한 열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지속되거나 완성되기 어렵다. 한 때 흥밋거리 정도의 관심으로는 제대로 된 컬렉션을 이루기 어렵다. 무언가를 모으려는 열정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물건으로 컬렉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필수적이다. 좋은 물건은 흔하지 않다. 값은 당연히 비싸기 마련이고, 경쟁자도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가 유일한 물건이고 정해진 값이 없는 고미술품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고미술 분야 컬렉터는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자산가 출신이기 마련인데, 열정과 자본이 있더라도 안목까지 갖추기란 쉽지 않다. 작품의 진위를 판정하고 우열을 가려 적정한 값어치를 매기는 감식과 감정은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작품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식안을 가진 조언자의 존재는 좋은 컬렉션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컬렉터의 열정과 자본이 엉뚱하게 기만당하거나 낭비되는 경우도 동서고금에 무수히 있기 때문이다.

서화 감식가로서 오세창 선생이 간송 전형필(1906-1962)의 수집을 자문한 일도 중요하다. 전형필의 열정과 자본력, 오세창의 안목이라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 현재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이다. 〈보화각(葆華閣)〉은 전형필이 성북동 언덕에 신식

오세창, 〈보화각〉 1938년(75세), 종이에 수묵, 32.4×130.5㎝,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2층 건물을 짓고 그간 수집한 고미술품을 진열하고 보관하기 위해 지은 건물의 편액으로 오세창 선생이 쓴 글씨이다. 1938년 당시 오세창은 75세, 전형필은 33세였다. 바로 전 해인 1937년 일제는 한글 사용을 금지하며 우리의 민족문화를 본격적으로 말살하려 하던 엄혹한 시대였다. 위창 선생의 민족정신과 고서화에 대한 안목은 간송 선생이 '천추의 정화(精華)가 수북한 집', 보화각을 이룰 수 있었던 든든한 배경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인 보화각은 간송 작고 이후 1966년 한국민족미술연구소를 설립해 소장품 연구를 시작했고, 1971년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꾸며 봄가을의 정기적인 전시회와 도록 발간을 시작했다. 2013년 간송미술문화재단으로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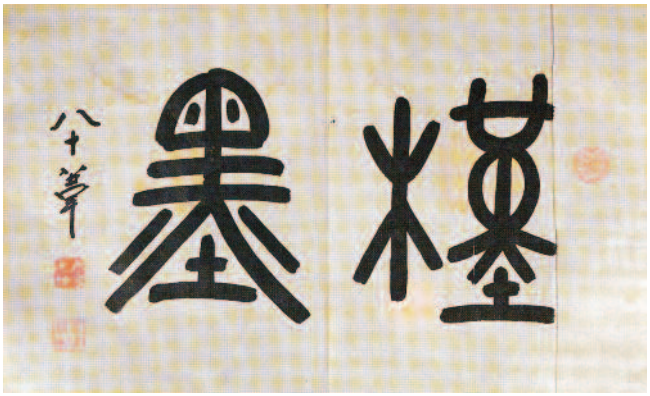
〈보화각〉은 앞 쪽에 〈백겁여생(百劫餘生)〉이 찍혀있고, 서명은 오세창으로 이름만 쓰고 〈오세창인〉, 〈위창(葦滄)〉을 찍었다.

'백겁여생'은 보화각의 존재가 백겁으로 오래오래 이어지라는 뜻일 것이다. '겁(劫)'은 시간을 나타내는 불교의 말로 1겁은 천지가 한번 개벽한 때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구체적으로는 가로세로가 40리 되는 큰 바위를 백 년에 한 번씩 얇은 옷으로 스쳐 마침내 그 바위가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묘사한다. 사실 가늠할 수 없는 시간, 무한이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기원을 담은 인문(印文)인 것 같다. 간송이 보화각을 이룬 정신, 위창이 이 이름을 짓고 쓴 글씨는 백겁을 충분히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오세창 선생의 여생 또한 백겁이 된다.

무궁화가 피는 우리나라의 글씨, 근묵

오세창은 『근역서화징』으로 완성한 문헌 조사와 연구 뿐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던 옛 그림과 글씨를 동구서매(東購西買)하여 『근역화휘(槿域畵彙)』, 『근역서휘(槿域書彙)』, 『근묵(槿墨)』 등 체계적인 컬렉션으로 완성했고, 우리나라 서화가, 학자 856명의 인장 3,912방을 수록한 한국 최대의 인보 『근역인수(槿域印藪)』도 완성했다. 한국미술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혼자 힘으로 모두 마련해 놓은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위창 선생이 애독하고 소장하던 희귀본을 포함한 전적류 1,125종 3,489책이 1962년 기증되어 '위창문고'로 보관되고 있다.

오세창은 대대로 서화와 금석문 탁본 수집이 대단했던 수장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오경석은 23세 때부터 중국을 드나들기 시작해 13차례에 걸쳐 사신 행차를 수행한 중국통으로 원나라 명나라 이래 중국의 고서화가 110점에 달했고 금석문 탁본은 수백 종에 이르렀다. 오경석은 김정희, 이상적으로 이어진 금석학 연구 학풍을 계승해 남해 금산 각자, 고구려 성벽각자, 신라석경, 와전 등으로 영역을 더욱 넓혔고, 고문자학 연구와 자신의 수집품을 토대로 신라와 고려의 금석자료 146종을 모아 해설을 붙인 『삼한금석록(三韓金石錄)』(1858년)을 편찬했다. 오세창은 아버지가 수집한 금석학 자료들을 연구하여 자신의 작품 속에 활용하며 전각과 전서에 일가를 이루었다.



오세창, 〈근묵〉 1943년(80세), 종이에 수묵, 31×49㎝,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근묵(槿墨)〉은 전서를 잘 쓴 서예가로서, 수장가로서 오세창 선생의 면모를 보여주는 글씨이다. 오세창이 1943년 80세 때 우리나라 글씨 수집을 두 번째로 완성하고 이 첩의 제목으로 쓴 제자(題字)이기 때문이다. 무려 34첩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고려 말 정몽주에서부터 서화협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근대기 이도영에 이르기까지 600여 년 간 우리나라 역대 명인 1,136명의 소품류 친필을 수집한 것이다. 명사들의 글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서예사적인 수집인 통시적 작품집을 『근역서휘』에 이어 다시 한 번 완성한 것이다.

오세창은 등석여, 오창석 등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전서와 전각을 개척했다. 18세 무렵부터 아버지 오경석의 가르침으로 전각을 시작한 이래 평생토록 전각에 몰두했다. 그의 전각은 크기, 형태, 인재(印材) 등이 다양할 뿐 아니라 각풍(刻風)에 있어서도 종정문(鐘鼎文), 상형고문(象形古文), 진새한인(秦璽漢印)에서부터 청나라 전각가들의 인풍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수용을 보여준다. 전하고 있는 인보만 해도 『위창인보(葦滄印譜)』(1892년), 『찬화실인보(粲花室印譜)』(1900년), 『철필잔영(鐵筆殘影)』(1910년),

『오씨단전(吳氏丹篆)』(1924년), 『위노인고(葦老印藁)』(1928년), 『오씨인집(吳氏印集)』, 『수우단전(酬雨丹篆)』 등이 있다.

오세창의 인영(印影)은 수백 여방이 전하고 실물 인장도 250여 과가 남아 있다. 수장가로서 오세창의 면모를 보여주는 인장으로 그가 소장한 전적, 서화, 탁본 등에 찍은 〈오씨비급(吳氏秘笈)〉, 〈오위창진장서화기(吳葦倉珍藏書畵記)〉, 〈열수오씨소랑현실장서인(洌水吳氏小琅嬛室藏書印)〉, 〈오세창소장(吳世昌所藏)〉 등의 수장인이 있고, 감식가로서 〈위창심정(葦滄審定)〉, 〈증경오세창안(曾經吳世昌眼)〉 등 감정인, 감상인이 있으며, 금석학자로서 금석문을 직접 탁본하고 임서하며 찍은 〈위창수탁금석(葦倉手拓金石)〉, 〈오세창소임금석문자(吳世昌所臨金石文字)〉 등이 있다. 〈고구려신라각석실주인(高句麗新羅刻石室主人)〉도 수장가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준다.

오세창은 백문방인 〈오세창〉, 주문방인 〈뮤뮤〉가 알려져 있는 한글 인장의 선구자이도 하다. 인문이 인상적인 것으로 "타인의 웃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불파인소(不怕人笑)〉, "공부를 다 해 낼 수는 없다"는 뜻인 〈불료공부(不了工夫)〉가 눈에 띈다.

'조충소기(彫蟲小技)'라고 했던 전각에 몰두한 전각가로서 창작의 길은 때로 남의 비웃음을 무릅쓰는 일이고, 집안의 소장품을 통해 수많은 대가들의 예술세계를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는 끝이 없다는 이런 글을 오창석이 새긴 것 같다.

〈근묵〉은 와당인(瓦當印) 〈진주암인(眞住庵人)〉을 앞 쪽에 찍었고, "팔십(八十) 위(葦)"로 서명하고 〈세창지새(世昌之鉨)〉, 〈위창한묵(葦滄翰墨)〉을 찍었다. 진주암을 비롯해 여박암(旅泊庵), 경고실(竟沽室) 등도 자주 보이는 당호이다. 세 방을 모두 진한고인(秦漢古印)의 각풍으로 새겼다. 인장으로 알 수 있는 오세창의 별호, 당호도 상당히 많다.

'문화보국' 이 네 글자로 살았던 한 평생

오세창 선생은 1950년 육이오 동란이 일어나자 가족과 함께 대구로 피난했다. 〈문화보국(文化保國)〉은 피난지 대구에서 89세로 새해 첫날을 맞은 1952년 여러 감회에 젖어 쓴 작품이다. 오른쪽에 두 줄의 작은 글자로 쓴 것은 바로 전 해에 지은 칠언시이다. 전란으로 피폐해진 조국을 문화로써 지켜가야 하리라는 선생의 소망이 '문화보국' 네 글자에 담겨 있다. 전서이지만 예서와 해서의 필의가 다 들어 있는 오세창 선생 말년의 대표적 글씨이다. 위창(葦滄)을 위창(韋倉)으로 서명했는데 이런 예는 만년에 많이 보인다.

오세창, 〈문화보국〉 1952년(89세)
종이에 수묵, 76×34.5㎝, 개인 소장

바로 아래의 인장은 〈위창(葦滄)〉이다. 이밖에도 위창(爲蒼, 韋滄, 韙傖) 등이 보이는데 몽인 정학교가 이름과 자를 쓸 때 동음이자(同音異字)를 활용한 방식을 따른 것이다.

단기팔사년음(檀紀八四年吟)

억아연두증시필(憶我年頭曾試筆)
새해 벽두가 되면 휘호하던 일 생각하니
전춘삽유오회종(前春卅有五回終)
지난해 봄 35회로 마지막이 되었네
낙성승전평화구(落成勝戰平和句)
승전을 이룬 평화의 문구
무연가개돌돌공(無硯可開咄咄空)
펼쳐 내려니 벼루 없어 안타깝게 쓰지 못했네
병탑소연와일옹(病榻蕭然臥一翁)
병상에 외롭게 누워 있던 한 늙은이
청신자기배천동(淸晨自起拜天東)
맑은 새벽 스스로 일어나 동쪽 하늘에 절하네
분향심축무다자(焚香心祝無多字)
향 사르며 마음으로 비는데 여러 글자 필요 없으니
팔성춘풍가무동(八城春風歌舞同)
온 나라가 봄바람에 함께 노래하고 춤추기를

탄사야(嘆詞也)

팔오년원단(八五年元旦) 서차어달구(書此於達句) 백감영회(百感縈懷) 팔십구옹(八十九翁) 위창(韋倉)

위창 선생은 '문화보국' 네 글자를 쓴 이듬해인 1953년 4월 16일(음력 3월 3일) 90세의 나이로 피난 중이던 대구시 중구 대봉동 31번지에서 작고하셨고 사회장으로 모셔졌다. 오세창 선생의 삶이야말로 문화로 나라를 보존한 진정한 문화보국의 일생이었다.

실화가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거쳐 무대로 환생하다

뮤지컬 '킹키부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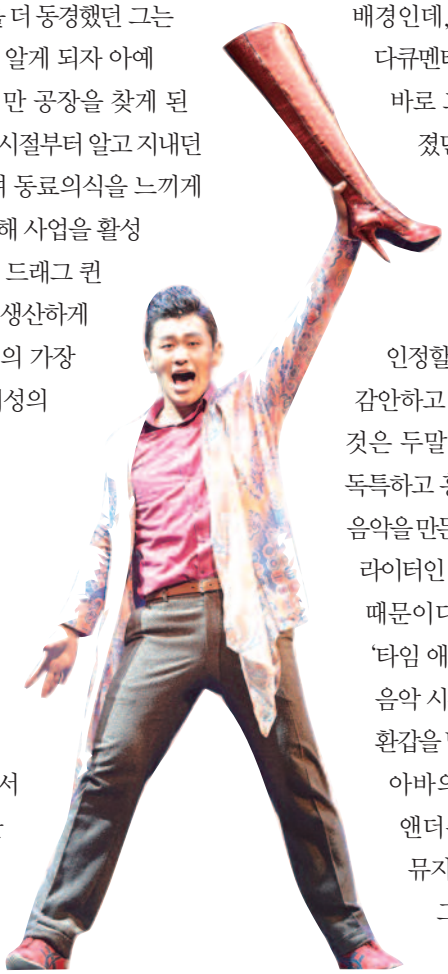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
뮤지컬 평론가
jwon@sch.ac.kr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큰 인기를 끌지 못하지만,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같은 영미권 공연가에선 많은 사랑을 받는 뮤지컬 장르가 있다. 바로 코미디다. 모처럼 나선 극장 나들이에서 너무 심각하고 어렵거나 난해한 경험을 하는 것보다 웃고 떠들며 공감할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고픈 대중의 욕구가 반영된 콘텐츠들이다. 하지만 웃자고 펼쳐낸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다. 시종일관 깔깔거리며 박장대소하다가도 코 끝 찡해지는 감동이 더해지기도 한다. 말 그대로 웃다가 울리는 별나고 사랑스런 존재가 이런 부류의 작품들이 지닌 매력이자 재미다.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 공연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뮤지컬 '킹키 부츠'는 바로 그런 '맛'을 공감하게 되는 멋진 작품이다. 처음에는 낯설고 신기한 성소수자들 덕분에 어깨를 들썩이는 흥겨움을 느끼다가 극의 종반부에는 그들이 지닌 인간적인 매력에 쏙 빠져 묵직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 그야말로 사람 혼을 빼놓는 요물 같은 작품이다.

이야기의 배경은 영국 시골의 한 신발공장. 주인공인 찰리는 급작스런 사고로 명을 달리한 아버지로부터 가업으로 운영하던 남성용 신발공장을 물려받는다. 아버지와 달리 신발보다는 애인과 대도시에서의 삶을 더 동경했던 그는 더 이상 공장 운영이 녹록치 않음을 알게 되자 아예 재산을 처분하려 마음먹는다. 하지만 공장을 찾게 된 찰리는 오히려 그곳에서 일하던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들과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동료의식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이들을 해고하지 않기 위해 사업을 활성화할 역발상으로 여장남자 퍼포머인 드래그 퀸(Drag Queen)을 위한 반짝이 부츠를 생산하게 된다는 반전이 펼쳐진다. 이 뮤지컬의 가장 큰 매력은 이 과정에서 톡톡 튀는 개성의 별난 여장남자 롤라(원래 이름은 사이몬)의 도움과 결국 그를 특별한 정체성의 성소수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한 명의 인간으로 이해하게 되는 이색적이고 감동적인 전개에 있는데, 결국 이기적이고 우유부단했던 주인공이 깨달음을 얻고 도시만을 동경하는 연인과 헤어진 후 공장에서 일하던 어린 시절 친구 로렌과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된다는 러브 스토리도 곁들여지면서 객석의 흐뭇한 미소를 이끌어내는 재미도 제법 쏠쏠하게 담아낸다.



처음 발단은 사실 무대가 아닌 영상물부터다. 뮤지컬 제작의 직접적인 단초는 사실 영화에서 비롯됐다. 흘러간 흥행 영화 속 2차원의 영상을 가져다 무대라는 열린 공간에 맞춰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별미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물론 영화를 이미 접해서 스토리를 모두 알고 있어도, 음악과 춤으로 버무려진 새로운 멋과 재미가 다시 관객의 발길을 끄는 것이 별스런 매력이자 감상 포인트이기도 하다.

영화 '킹키 부츠'가 첫 선을 보였던 것은 2005년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한가지 또 있다. 이 영화 속 이야기가 사실은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진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영국의 중부 시골마을인 노스햄프턴에 있던 한 남성화 신발공장의 극적인 변화에 관한 실제 사건이 배경인데, 이 실화가 BBC 텔레비전에서 1999년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인기를 누렸고, 영화 제작은 바로 그 다큐멘터리를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던 것이다. 실제 사건이 다큐멘터리가 되고, 영화를 거쳐, 다시 무대용 뮤지컬로 환생하는 현대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공식의 전형적인 루트를 거쳐 대중들에게 인기를 모은 모범 사례라 인정할만하다. 물론 실화가 배경이 됐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더욱 남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에 불과한 이 뮤지컬만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매력이다.

음악을 만든 작곡가도 화제가 됐다. 바로 여성 싱어 송 라이터인 신디 로퍼가 이 뮤지컬의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걸스 저스트 워너 해브 펀', '쉬 밥', '타임 애프터 타임'등 1980~90년대 글로벌 대중음악 시장에서 빅 히트를 기록했던 그녀는 이제 환갑을 넘긴 노년의 아티스트가 됐다. 엘튼 존이나 아바의 남자멤버인 비요른 울바에스, 베니 앤더슨처럼 그녀도 팝 뮤직을 넘어 무대용 뮤지컬 작곡가로서의 변신을 꾀하려 했는데, 그런 신디 로퍼의 첫작품이 바로 '킹키부츠'다.

그리고 마치 아직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듯 그녀는 이 뮤지컬 작품으로 미국 무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토니상 수상식에서 뮤지컬부문 작곡상까지 거머쥐는 쾌거를 달성했다. 뮤지션 개인으로도 대단한 영광이지만 토니상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단독으로 작곡상을 수상한 진기록이라는 데에도 그녀의 특별함은 남다르다. 명불허전이라는 말처럼 역시 신디 로퍼답게 뮤지컬의 흥행은 오리지널 캐스트 앨범의 성공으로도 이어졌다. 2013년 3월에 발매된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캐스트 음반은 단박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공연 음악으로서의 정체성 뿐 아니라 신디 로퍼의 음악적 스타일이 대중적 인기에도 한 몫을 톡톡히 행사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힐에는 성적 매력이 담겨야해(Sex is in the Heel)'와 같은 뮤지컬 넘버는 빌보드 클럽 차트의 25년 역사 중 최초로 톱 10에 진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극중 성소수자인 드레그 퀸 – 롤라 역도 화제거리다. 브로드웨이의 원작 무대에 이 역할로 등장했던 배우 빌리 포터는 실제 무명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던 인물인데, 이 작품을 만나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해 태풍의 눈 같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결국 그는 토니상 시상식의 가장 주요한 시상부문인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는 영광까지 이뤄냈다. 최근까지도 브로드웨이 무대에선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 그가 직접 무대에 등장하는 날의 티켓은 암표시장에서 다른 날보다 비싼 가격에 흥정이 오가는 풍경까지 만들어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가 됐다. 우리말 초연 무대에서는 오만석과 강홍석이 이 역으로 등장해 사랑을 받았다. 두 번째 앙코르 무대에서는 정성화가 가세해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천연덕스런 연기를 실감나게 그려내 큰 박수를 받았다. 정성화는 이전에도 뮤지컬 '라 카지'에서 여장남자의 성소수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표현한 바 있는 데, 이 작품 '킹키부츠'에서도 의심의 여지없는 카리스마의 남자 주인공 롤라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 극찬을 받았다. 그가 지금까지 맡았던 전작들 – 예를 들어 '레 미제라블'이나 '맨 오브 라 만차', '영웅' 혹은 '아이 러브 유'를 기억하고 있는 관객이라면 같은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폭 넓은 연기 변신에 놀라게 된다. 왜 우리나라에 인기 뮤지컬 배우들이 이토록 큰 사랑을 받는지 그는 무대에서 최고의 연기와 노래를 한치의 아쉬움도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 기업인 CJ E&M이 브로드웨이 작품에 직접 제작비를 투자하는 등 프로듀서로 참여한 탓에 우리말 무대는 비교적 빠른 시기였던 브로드웨이 개막 바로 이듬해에 성사됐다. 정작 이야기의 시작이자 배경이 됐던 영국에서의 공연이 2015년에 성사됐으니 우리말 무대는 같은 영어권의 글로벌 시장보다도 빠르게 전개된 셈이다. 격세지감도 느끼게 돼 어깨가 으쓱해진다.

올해 우리말 앙코르 무대는 초연에 비해서도 한층 성장하고

원숙한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무뚝뚝한 사나이 돈 역으로 나오는 영화계의 씬스틸러 고창석은 첫 무대부터 올해 앙코르까지 변함없이 등장해 관객들을 열광하게 만든다. 주요 배역들은 크고 작은 교체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찰리 역으로 SG워너비 멤버인 이석훈과 인피니트의 김성규가, 드레그 퀸 롤라 역으로는 박은태와 최재림, 강홍석이 등장한다. 한편, 이번 무대에서도 로렌 역으로는 김지우가 등장한다. 초연부터 같은 배역으로 무대에 섰던 그녀는 특히 박수받을 만한 완성도와 재미를 보여준다.

하지만 역시 이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은 여장을 하고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는 드레그 퀸들이다. 족히 17~8cm 높이는 돼 보이는 하이힐을 신고 쉬지않고 뛰어다니고 춤추며 노래한다. 그녀들(?)을 보는 재미만으로도 무대는 충분히 이색적이고 별나고 제대로 흥겹다.

사실 뮤지컬에서 성적 소수자의 이야기가 '킹키 부츠'만의 전매특허는 아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인기를 누린 바 있는 여러 뮤지컬들, 예를 들어 '헤드윅'이나 호주산 무비컬 '프리실라' 역시 비슷한 배경이나 접근, 스토리 내용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성 소수자 소재의 작품들이다. 엇비슷한 시각이 다수의 뮤지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인기를 누려온 이유는 아마도 이들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진정성과 감동이 요즘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만큼 성정체성에 대한 소재에 관대해진 요즘 대중들의 열린 시선이 오히려 흥미롭다.

물론 성적 이질감으로 인한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며, 종국에는 세상만사 모두가 결국 인간이 겪고 경험하며 느끼는 일이라는 휴머니즘의 감동이 주요한 이야기의 축을 형성해낸다.

성적 소수자의 등장을 단순히 충격적인 캐릭터를 통한 별난 자극쯤으로만 여긴다면 절반짜리 이해에 불과하다. 사실 이런 작품들의 진정한 묘미는 성 정체성 그 자체보다 이들이 겪는 인격적 성숙이나 휴머니즘의 공감대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대는 이들 성적소수자들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정상'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풍자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자극 뒤에 숨겨진 보편적 감동의 원리를 찾아낼 때, 비로소 작품에 대한 이해가 완성된다는 점은 간과되어선 안 될 감상 포인트이다.

커뮤니티 아트 7

장식보다 사용을 위한 예술

이강민
울산미학연구소'봄'대표/울산대겸임교수

지난 호에서는 커뮤니티 아트가 예술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접근법인 미학보다는 보통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번 호에서는 커뮤니티 아트가 오로지 '예술을 위한 예술'이나, 예술이 단지 어떤 대상의 권위를 세워주는 장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위해 사용하는 예술이라는 것을 참여예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의 예술 참여는 적어도 괴물과 마주치진 않았다.

참여예술(Participatory arts)은 동시대 예술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라 할 수 있다. 비록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참여예술은 이미 예술계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건설, 교정, 행정 등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광범하게 펼쳐지고 있다.(그림1)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술에 대한 사용 문제를 놓고 예술계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예술이 사회와의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해 예술적 감찰관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쟁의 촉발은 마타라쏘(François Matarasso)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1997년 한편의 보고서, 『장식이냐 혹은 사용이냐?』를 펴낸다. 이 보고서는 새롭게 출발한 노동당의 정책이념인 '사회적 포용과 창조산업[1] 활성화'에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참여예술이 자본주의 이윤축적에 활용된다는 비판에 휩싸이게 된다.

그렇다면 참여예술은 어째서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예술계의 금과옥조를 어기고, 기어이 장식을 위한 예술을 넘어서고자 했을까? 과연 마타라쏘는 괴물을 만났을까?

장식으로서 예술

참여예술에 대해 문제를 삼을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참여예술은 예술의 사회적 참여와 보통사람들의 예술참여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예술과 장식예술은 모두 사회적 참여를 전제하기 때문에 양자의 변별을 위해 장식에 대한 의미를 우선 정하고자 한다.

한자어 문화(文化, culture)에서 문(文)자는 그 속에 무늬, 즉 장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원시인들은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권위를 표현했다. 그들은 짐승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주어, 감각기관을 마비시키기 위해 장식을 사용했다. 가면을 쓰거나 주술적 공포심을 주는 문신, 혹은 실제 신체보다 커보이게 하는 장신구 같은 장식은 이를 위해 사용되었다.(그림2)

그런데 계급사회의 출현과 함께 장식은 위계질서의 상징이 된다. 봉건사회에서 장식은 왕족과 귀족을 나타내는 혈통(신분)이 되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식은 자본(신분)이 되었다. 오늘날 상품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장식이다. 자본주의는 장식을 이미지와 정체성이라는 욕망으로 대체함으로써, 상품 판매와 이윤 창출의

1) 영국에서 창조산업이란 문화와 미디어, 스포츠, 레저가 결합된 총체적인 문화산업을 의미한다.

그림1〉 참여예술(participatory arts)은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협력 작업을 말하며, 예술가가 주도하는 작업에서부터 비예술가가 주도하는 작업 사이에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하다.
– 〈위〉 김수자, 〈마음의 기하학〉, 2016, 국립현대미술관. 이 작품은 예술가가 마련한 기획에 관객들이 진흙공을 만들어 올려놓음으로서 완성되는 작품이다.
– 〈아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들의 극단, 'Rising Voices'는 가정폭력, 생존 및 치유의 경험을 주제로 한 작품 〈Deception of the Heart〉을 제1회 연례 Community Works Youth Theatre Festival에서 공연했다.
출처▶http://img.khan.co.kr/news/2017/06/11/l_201706120100129 1100105681.jpg
http://communityworkswest.org/wp-content/uploads/2019/05/IMG_5503-1.jpg

그림2〉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우리족은 전쟁에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문신을 했다. 17세기 유럽인들은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오리족의 문신 때문에 육지 탐험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출처▶트래블바이크뉴스(http://www.travelnbike.com, 뉴질랜드관광청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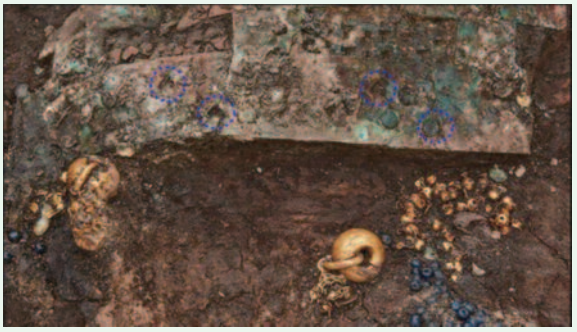


그림3〉 신라 상층 귀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과 장신구. 경주 황남동 신라고분(2020)
출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67/332/imgdb/original/2020/0903/20200903503174.jpg

그림4〉 1911년 미국 펜실베니아 광산에서 일하는 아동노동자. 19세기 공장노동자의 평균수명은 20세 미만이었다.(한국경제, 2006.06.12.)
출처▶https://img.hankyung.com/photo/200606/2006060945731_2006061256231.jpg

그림5〉 Gustave Courbet의 〈돌을 깨는 사람들〉 (1849)
출처▶https://www.phaidon.com/resource/courbetstonrbreak.jpg

무한 증식구조를 완성했다.

요컨대 장식은 공동체에 필수적인 문화이지만 그 자체로 공동체 내부의 위계질서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장식예술은 역시 사회적으로 관여하는 예술이긴 하지만 그 상징성(유일성)으로 인해 지배와 피지배, 부자와 빈자의 구별 짓기에 사용되는 예술로 전용된다.(그림3)

'예술을 위한 예술' 다시 읽기

사회에 개입하는 장식예술과 사회를 벗어나는 예술의 자율성은 서로 대립적 관계로 보인다. 하지만 장식예술은 순수예술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곳은 1830년대 고티에의 저작 『모팡 부인』(Mademoiselle de Maupin)의 서문이다. 그는 이 책에서 '무용한 것만이 가장 아름답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사회로부터 예술을 분리한 첫 번째 선언이 된다. 그런데 고티에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산업혁명이 정점에 이른 1830년대라는 시대상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18세기 계몽주의와 귀족취향의 로코코 미술을 거부하는 신고전주의는 당시 경제적 부를 한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권력이 없었던 부르주아의 바람을 대변해주는 사상과 예술이었다. 혁명에 성공한 부르주아는 이제 정치권력까지 손에 쥐게 된다. 거칠게 없었던 부르주아는 혁명의 성과를 독점하고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다. 현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아동과 여성노동, 열악한 주거와 위생으로 인한 감염병 등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기 시작했다. (그림4)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현실에 예술적 개입을 시도한다. 낭만주의는 실러(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가 그랬듯이 합리적 이성으로 무장한 부르주아 산업사회가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된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들은 이성 혁명이 아니라 감성 혁명을 통해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고자 했다.

리얼리즘은 낭만주의의 환상과 소박한 저항에 대해 비판하면서 예술이 현실을 있는 그래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리얼리즘은 비록 화풍에서는 신고전주의를 계승했지만 화폭에서는 그것을 혁신한다. 리얼리즘은 신고전주의가 규범화 한 신화와 같은 역사나 영웅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주제로 담아냈다. (그림5)

낭만주의의 환상적 폭로와 리얼리즘의 현실주의로 인해 부르주아 계급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이에 부르주아는 현실에 눈감아 준다면 예술가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때에 '예술을 위한 예술'은 19세기 말 유미주의로 한발 짝 더 들어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환상적 폭로마저 포기했다. 여기에 20세기 초 형식적 모더니즘은 회화의 주제마저 포기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이 사회적 무기능성이라고 강변했다.

이로써 부르주아는 예술의 자율성을 자신의 악덕을 은폐하는 장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예술의 자율성을 19세기 전·후반으로 구별해서 봐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술과 사회의 무관성이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부르주아 체제 완성을 위한 정치적 기획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공기로서 예술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타당성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장식을 넘어 사용을 위한 예술

마타라쏘(1997)에 따르면, '모든 예술가와 종사자들은 사람들이 예술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 미치는 것에 의미를 두며, 아이들과 성인들은 각각 77%, 84%가 예술에 대한 참여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었다.

이전의 나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베틀리(Batley)에서 무굴 텐트 프로젝트 참여한 무슬림 여성은 자신이 열정적으로 변했고, 남편이 이전과 다르게 자신의 자수(뜨개질)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아이들은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림6)

사람들의 예술 참여는 저마다 가진 창의적 능력을 발견하고 키워줌으로써 자신감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이어진다. 예컨대 무슬림 여성들의 무굴 텐트 프로젝트(V&A Mughal Tent project)는 그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자신들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을 귀 기울이게 했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성은 이후에 여성들을 위한 여러 회의나 축제, 세미나로부터 많은 강연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예술이 예술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위대한 사람들을 장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멈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예술은 삶의 무게에 지친 보통사람들에게는 구별장치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보통사람들에게서 예술은 자신이 잘 다루는 예술이고, 그 예술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공동체의 창의성을 높이도록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보통사람들이 만드는 도시의 독특한 이미지와 정체성은 대부분의 도시가 관심을 갖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은 도시의 매력이 되어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존의 도시정책이 경제적 측면에서만 고려되었고 예술은 화려한 도시의 장식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도시 가치 상승을 더 부추기는 데 사용되었고, 그럴수록 부자와 빈자의 간극은 더 벌어졌다. 빈부 격차가 극심한 이중도시(dual city)는 지역민들에게 소속감 보다는 '웬수 같은 세상'으로 각인될 것이다.(그림7)

저명한 사회학자 뒤르켐(Émil Durkheim)은 사람들을 자살로 이끄는 것은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아노미(anomie) 상태를 예방하는 것은 도시화로 해체된 '유기적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회적 연대라고 했다.

뒤르켐의 연구는 보다 인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물리적 공간 개발보다 사회적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마타라쏘는 예술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체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되었다"거나 "소속감과 공헌감을 더 높게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했다.[2)]

소속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안정감을 주며, 공헌감은 자신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준다. 이러한 감정과 삶의 태도변화는 파편화 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예술이 현대사회가 가진 직면한 도전에 대처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술을 케이크 위에 장식된 체리보다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만 효모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림6〉 인도 전통 자수, 나심 칸(Naseem Khan)은 무슬림 이주여성들과 인도 전통 자수 공예 프로젝트를 했다.
(이 사진은 본 내용과는 상관없음)
출처▶https://previews.123rf.com/images/cappelli/cappelli1703/cappelli170300328/75061959-sumrasar-gujarat-india-bhuj-%EA%B7%BC%EC%B2%98-sumrasar-%EC%A7%80%EC%97%AD-%EB%A7%88%EC%9D%84%EC%9D%98-%EC%A0%84%ED%86%B5-%EC%9E%90%EC%88%98.jpg

그림7〉 이중도시: 빈부가 공존하는 도시. 아래 사진은 파나마 시티와 그 옆에 있는 보카라카자(Boca La Caja). 화려한 파사드의 금융도시와 판자촌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Photos : Mileika Lasso/AFP
출처▶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Salvador_Garcia-ayllon/publication/309544411/figure/fig11/AS:696168711483392@1542990963257/Dual-landscape-in-the-seafront-of-the-city-of-Panama-financial-facade-and-inside.png

2) François Matarasso,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1997, 48쪽 참조.

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17 | 박지운
오페라 지휘자 / 오페라 작곡가

어느 시대의 구애?
Me too?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나를 피해 달아나고
알지도 못하는 놈에게 달려가고
그래서 입맞춤 당하고 그래서 무너져내리고
결국은 사랑을 맹세하고

난 그 자리에서 맹세했었지,
악착같이 돈 벌어서, 악착같이 출세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무너뜨리겠다고

언젠가는 너희들의 불행위에,
그 불행위에 내가 군림하겠노라고
맹세했었지"
- 오페라 운수좋은날 2막 1장 중 김사장의 대사

모두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억압적인 1970년대의 경상도 아저씨들의 대표적인 이미지였던 권위적인 남자 김사장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를 이름도, 성도 모르는 '놈'에게 빼앗기고 만다.

1.

"순진하다구요?
하지만 이렇게 순진한 사람 가슴에
이렇게 불을 지른 사람은 없었어요.
당신의 예쁜 미소가 아롱져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먹고싶지도 않고, 친구도 싫고
오로지 당신, 당신 생각에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것 같았어요!"
- 1막 2장 중 재수의 대사

순진하고 내성적이지만 역시 투박하기로는 김사장과 다를바 없는 1980년대 초의 경상도 총각 재수는 끌어오르는 격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흥분하며 아미에게 이렇게 첫 고백을 털어놓고야 만다.

필자의 10대, 20대의 시공간적 주무대였던 1970-80년대 대구에서는 (물론 필자만의 시각인지도 모르겠으나), '여자는 일단 'No 라고 튕기고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아서면 안된다'는 남자들만의 이론이 팽배했던 것 같다.

그 유명한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기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있다", "안다리 걸기 한번이면 끝난다" 등의 요즘 여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황당하기 까지한 여러 속설들이 그야말로 난무했던 1980년대였던 것이다.

2.

"재수씨라고 했던가요. 전 아미라고 해요
한데 전 이미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어요
재수씨는 참 착한 사람 같아요… 중략.

하지만 어려운 저의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
전 죽기보다 그 사람이 싫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 1막 2장 중 아미의 대사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대학 졸업반 아미는 공부를 더하고 싶고, 또 집안에도 도움이 될 요량으로 돈 많은 집의 외아들인 젊은 시절의 김사장 (물론 당시는 이 이름이 아니었겠으나)과 약혼한 상태이다.
헌데 이 김사장이란 인물은 전형적인,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번 1980년대 졸부집의 못돼먹은 외아들인 모양인데…지 맘에 드는 여자라면 무조건 소유하려고 덤비는 망나니 생활을 하는 이 노총각이 그래도 아미만큼은 진짜 좋아하는지 자기 약혼자로 삼았다.

하지만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지 않고 막 자란 자식의 특유의 망나니 기질과 1970-80년대의 경상도 남자의 권위가 만나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니 아미가 기겁할 수밖에…
이날도 그렇게 아미와 다투다가 요즘 같으면 경찰에 잡혀갈 행위인 뺨을 한 대 갈기고, 울분에 찬 아미는 그렇게 뛰어나가고 만다.

3.

한편 "무조건 저녁 8시에 불꽃축제에서 기다리겠다" 소리치고 부끄러워 도망쳤던 재수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채 밤 11시가 되도록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이 밤이 깊어갈수록 내님이 그리운 것은
냇물이 별빛을 기다림 그것과 같은 것이라
내 노래 이어 갈수록 내님이 그리운 것은
귀또리 가을을 기다림 그것과 같은 것이라.

끊이지 않는 노래 내 노래뿐인가?
님을 사모하는 노래 내 노래뿐인가?
이 밤, 잊지 못해 부르는 내 노래여
내 님이 누우신 자리에 퍼져 가여라

내 님이 누우신 자리에 퍼져 가여라."
- 1막 2장 중 재수의 아리아

지금도 별반 바뀐것 같지 않지만, 1980년대 중반에 20대를 맞은 투박하면서도 내성적이고도 소극적이었던 필자는 여러 여학생들을 좋아하면서도 그들에게 세련되게 접근하는 기술이 참으로 부족했고, 그러다보니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기술부족을 이러한 저러한 글과 음악으로 상쇄하려는 시도를 많이도 한 것 같다.

대학교 1학년 1학기 3월에 쓰여진 필자의 첫 가곡 '나의 노래'도 그러한 연정의 순간이 응축되고 2시간만에 폭발하여 터져 나온 가사와 곡으로서, 오페라 운수좋은날 에서 재수의 아리아이자 곡을 전반에 흐르는 Leitmotiv 가 되었다.

4.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할겁니다.
당신을 쟁취하고 말거예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우리 아직 팔팔하잖아요?
왜 벌써부터 자기 인생을 돈에 맡기려고 하나요?"
- 1막 2장중 재수의 대사

평소의 재수답지 않은 이 과격한 표현(?)들은 과연 어디서 튀어나오는 것일까?
우리안에 내재된 수 없이 많은 다른 모양의 페르소나(persona) 중 평소에는 거의 잠잠하던 한 녀석이 어떤 에너지의 자극을 받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리라.
그러면 그것이 보통 인생의 한 터닝 포인트가 되곤 하지.

"재수씨의 그 충고, 그 맘 진심인 것 알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하지만 졸업하자마자 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어요.
이제와서 돌이킬 수 없어요…"
-1막 2장 중 아미의 대사

모차르트의 오페라 'Cosi fan tutte'에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여자들의 마음안에 숨어있는 이 요상한 심리에 대해 살펴보자. 비쥬얼이 근사한 남자, 또는 경제력있는 남자, 또는 녹아내릴 정도로 화려한 언변을 장착한 남자, 그리고 도무지 유머감각이 너무나도 풍부한 남자 등이 남자를 대표하는 매력포인트이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싫다고 해도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대시하는 남자'도 여자를 쟁취하였으니, 특히 이 시대 경상도에는 이러한 경우의 수가 참으로 많았던 것이다.

마침 이 끈질긴 남자가 그리 특별한 매력이 없어도 한편으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 보인다면 이 시대 여자들의 마음은 결국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일까?

아니면 스탕달의 연애론에서 말하는 '결정작용'으로 인해 이 별볼일 없는 남자가 불지른 연애감정이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남자가 여자로 하여금 근사해 보이게 하는 것일까?

5.

"재수 : (아미를 잡아 흔들며)
안됩니다, 아미 안돼요.

아미 : 아, 이러지 마세요.

재수 : (아미를 껴안으며)
끝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당신을 쟁취하고 말거요.

아미 : (재수를 밀치며)
아, 재수씨, 이러면 안돼요.

재수 : (물러서지 않으며)
아미, 아미,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미 : (계속 뿌리치며)
그만해요, 그만, 재수씨!

재수 :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아미 : 재수씨, 이제 그만…
(아미의 그 말은 갑자기 덮친 재수의 입술로 인해 끝을 맺지 못하고 만다)

잠깐! 우리는 이 대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목숨을 걸고 덤비는 듯한 재수의 구애행위가 만약 오늘 밤에 벌어진다면, 그리고 만약 아미가 재수의 이 행위를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경찰에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때는 이 아름답다고 여겨지기까지 용기에 가득찬 이 영예로운 구애자는 오늘날에는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며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6.

"아미 : 재수씨…

재수 : 오래도록 행복하게 해 줄께요.

아미 : 정말 제가 그리 매력적인가요?

재수 : 너무너무 예뻐요, 당신은.

아미 : 이제 전 어떻게 하죠?

재수 : 나만 믿어요. 내가 다 해결할테니…"

이 대목에서 아미를 폭행하고도 그 뒤를 따라와 이 기막한 광경과 대화를 다 목격한 거의 조폭수준인 김사장은 치욕과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뜻밖에 발길을 돌려 사라지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지어진 1983년의 두 사람의 사랑은 1막에서 만큼은 행복하게 맺어지고 숙희라는 사랑스런 딸을 낳고 그리 부유하진 않아도 알콩달콩 16년간 잘 살아간다.

7.

물론 오페라 운수좋은날의 2막에서는 운수좋은 놈이 아니라 그의 이름처럼, 절규처럼 '자기가 재수 옴붙은 놈'이어서 IMF의 쓰나미를 얻어맞고 아미는 암에 걸리고 동대문시장에서 김사장에게 억압받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런데… 그게 뭐 대수인가?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처럼 혹시 예정된 불행이 미래의 어느 길목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도 정해진 신의 섭리와 우주의 질서에 자연스레 몸과 마음을 맡기고 그 불행을 만나러 가면 될게 아닌가?

더욱이 그 미래가 불행이지 행복일지를 알 수 없다면 말이다.

미학의 눈 - 작품해석과 감상 7

환유로 엮인 이미지 망
–서사가 형식이 될 때

남인숙
미학박사 / 미술평론

1. 그녀들의 베란다: 원더랜드에서 쑥이네 정원까지

정민제 작가를 알게 된 것은 어느 전시관의 10주년 기념 전시 때이다. 이 전시에 기획자로서 〈태도, 전체는 아닌(attitude, not-all)〉이라는 제목으로 참여했다. 제목은 나의 전공인 '정신분석'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제목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태도, 전체는 아닌'은 '일반적이고 일의적(一義的)이면서 중심을 상정한 사고체계'로부터 적극 벗어나는 새로운 상상력을 지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 전체(not-all)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제시된 제목이다. 정신분석 전모(全貌)를 겨냥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현대미학과 비평의 새로운 기반으로서 정신분석은 우리들의 심적인 사실들에 대한 새로운 탐험을 시도하는 영역으로 매우 중요하다. 작가, 작품, 사회 등의

그녀들의 정원

상호 연관관계나 독자적인 세계에 대한 탐구에서 정신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간 연구된 양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어쨌든 미술과 정신분석의 상호 영향관계 안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여성적인 상상력과 그 무대이다. 정신분석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여성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한 말은 의미심장하게 주요 문제들을 이미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적'이라는 말은 새로운 분파나 분리를 지칭하는 용어가 전혀 아니다. 줄곧 주장해온 바로서 이 용어는 새로운 삶의 태도에 기반 한 상상력이자 전망을 지시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 '비-전체(not-all)'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전체는 아닌' 비-전체는 무의식적 주체의 여성 특성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동시대의 미술의 실험과 상상력에 대한 방향 제시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정민제 작가는 이러한 상상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오면서 서사가, 이야기가 하나의 형식이 되도록 실험하고 있다. 자아는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며, 자아를 구성하는 심적 사실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전제들과 방법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드러난다. 관계의 역학 속에서 구성되는 자아를 정신분석의 한 부류에서는 무의식의 주체라 말하는데,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검은 대륙은 언어로써 언어를 넘어서는 방법, 바로 시적(詩的)인 연결과 해독을 왕래하며 탐사해야 드러나는 것이다. 시적인 왕래의 대표적인 방법이 은유와 환유의 연결 방식이고 이 연결방식은 대단히 논리적이다. 특히 환유는 전체를 지시하는 단편으로서 이 단편조각이 지시하는 전체와 매우 가까이 있는 것들 중 하나이다. 환유물은 그런 단편 조각이기에 자체만 보면 수수께끼와 같다. 환유는 흔히 '왕관만 제시하여 왕을 지시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되곤 한다. 오래전 영화이지만 〈화영연화〉의 한 컷, '슬리퍼 장면'이 환유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떨렁 환유 이미지만 마주하게 되면 어떤 맥락인지 사실 막막하고 막연하지만 그것은 '나의, 우리 전체의' 어떤 것을 지시하는 중요한 단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롤랑 바르트가 괜히 사소한 것에 주목했겠는가. 혹은 자크 라캉이 괜히 얼룩 따위를 언급했겠는가. 모든 이미지는 우리 삶의 증거물이다.

하나의 이미지가 삶의 증거물이라고 할 때, 한 이미지는 당연히 엄청난 서사를 머금고 있다. 이럴 때 이미지는 서사 자체이다. 정민제 작가는 그런 증거물을 다루며, 그런 서사를 다루고 있다. 정민제가 다루는 이미지들, 증거물이자 서사 덩어리인 이미지들은 자체가 하나의 고유 형식이 되는, 그런 새로운 조형의 길을 작가는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미지를 모아 더 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하나하나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계열화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작업을 장면화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미지의 계열화는 '환유이미지의 망'이 된다.

그렇다면 작가가 이런 형식에 도달하는 과정은 어떠할까? 작가는 자신의 현실을 낯선 '이질감'이 뭉쳐진 것으로 파악한다. 작가는 이질감의 원천으로서 엄마들에 대한 계보학적인 탐사를 수행하며 자신의 현실을 재구성해간다. '엄마' 그것은 요람같이 포근하고 여리고 친숙하면서도 명령하는 어머니로서 우리 현실의 한 가운데 법으로 존재한다. 엄마는 한 없이 그립지만 무섭기도 하고 죄책감의 원천으로서 무거운 대타자(Other)이기도 하다. '엄마'는 이 모든 것을 합한 이질(異質)의 원천 자체인 것이다. 한없는 사랑의 대상이면서도 너무 쉬운 폭력의 대상이 되는 엄마는 그 자체로 수수께끼이다. '어쩌다 엄마'가 된 정민제는 작품의 제목으로 〈어쩌다 엄마〉를 활용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응축과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싶다. 정민제는 현재와 과거를 끊임없이 왕래하며 계보를 따라 탐사한 엄마들을 현재에 공시적인 사건으로 재구성한다. 대타자로서 엄마는 의미망의 원천이자 기표들의 총체이다. 이 말을 '엄마'는 우리에게 의미와 의미전달의 전부라고 쉽게 풀어볼 수 있다. 이런 특별함을 드러내기 위해 영문대문자를 써서 Other이라고 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방법이 없어서 '대타자'라고 표기한 것이다. 사실 기표란 물질이므로 보임으로써 의미를 전달하는 시각전달체이기도 하다.

IDENTITY

전지적 자아시점

정민제 작업은 이런 엄마들과 연관을 갖는다. 작가는 그녀들의 손길이 닿은 오브제들을 끌고 와서, 바느질과 가위로 끊임없는 편집을하며소위'아이롱드로잉'과 왁싱의 현장 속에서 작품의 양식을 완성한다. 은유, 환유는 그녀들의 노동, 즉 바느질, 천 깁기나 가사노동과 베란다, 정원 등을 떠받치는 방법인 바, 정민제는 '바느질과 가위질, 왁싱과 아이롱 드로잉'으로 그 구현의방식을대체시켜자신만의 이미지 언어를 만들고 있다. 천 조각들의 결합, 서로 다른 맥락에서 가져온 천들의 연결, 바느질, 새김질 등 작품 이미지는 계보학적인 탐사를 통해(대표적으로 할머니의 담요) 현재로 까지 이끌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환유의 연결망은 '서사가 형식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다.

2. 환유의 계열(the serial of metonymy) : 말의 온도와 전지적 자아시점

정민제에게 천은 삶의 환유물이다. 구제에서부터 새로 생긴 짜투리 천에 이르기까지 천의 출처는 다양하다. 하나하나 사연이 깃든 천들의 재조합은 천이 머금고 있는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거나 혹은 말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언어를 입히는 조형실험인 것이다. 잉카 쇼니바레가 흑인들의 고유한 의상을 제작하는 화려한 천에 주목한 것도 그 계기가 비슷하다. 고유함을 상징하는 천 즉 '더치 왁스'의 유래를 살피면서 상상력의 식민성과 백인중심의 상상력이 어떻게 지배적으로 순환되는지를 잉카 쇼니바레가 이미지로 제시하였듯이, 정민제의 천 수집과 편집, 조합, 재구성 역시 가상(假想)의 중심에 포획되지 않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새로운 상상력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수세미 등은 가사노동과 가정, 사회적 삶에 얽힌 여성주체들의 삶에서 떼어 낸 그녀들의 대체물이다. 특히, '말의 온도'에서 수세미에 말을 새기기 시작한 '수세미 바느질'은 우리 일상에서 수없이 반복하는

전지적 엄마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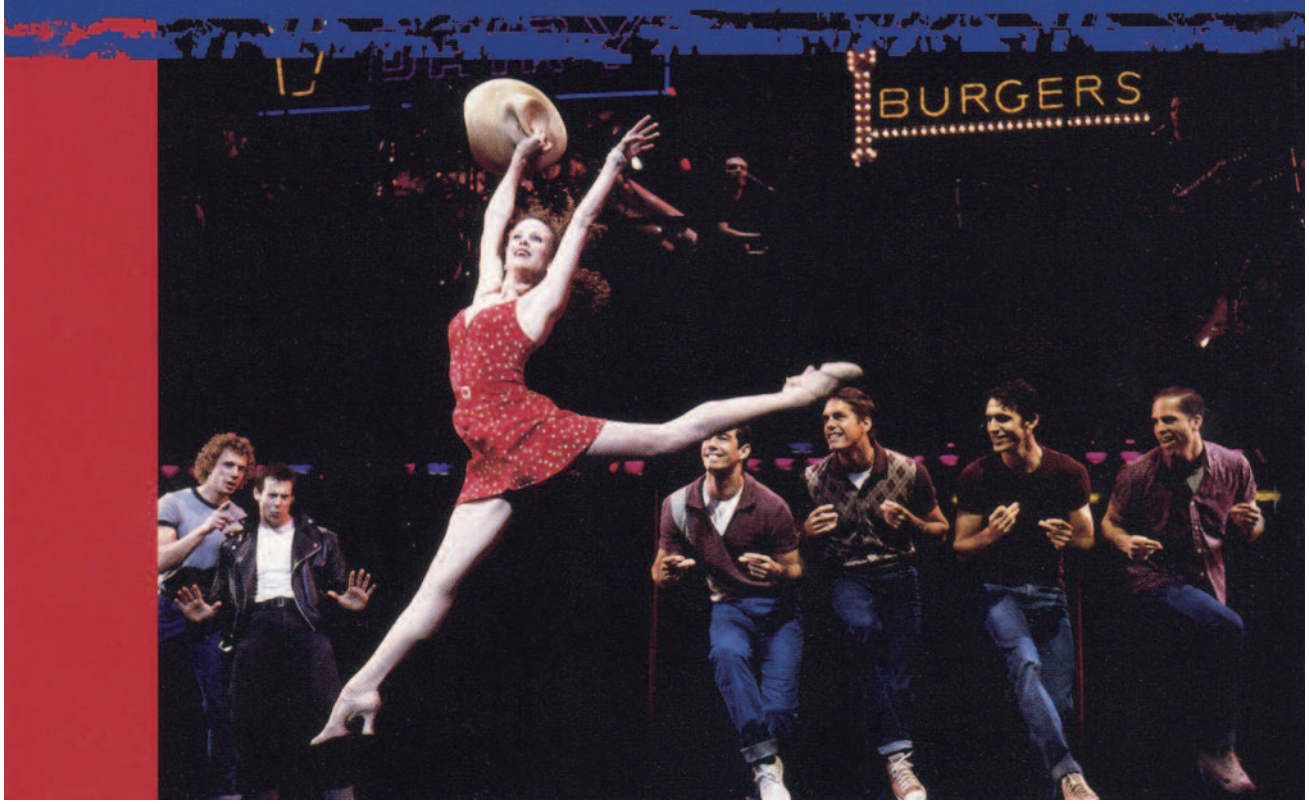
모두의 독백들이 아닌가 싶다. 정민제는 웅얼거리는 독백을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끝맺지 못하는 문장처럼 자신의 작품을 계열화(the serial)한다. 이 점이 정민제 작업의 고유한 점인데, 이미지들이 계열화 양식(serial style) 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계열화 양식에 대한 이해는 솔 르윗을 참조할 수 있다. 같은 모듈을 일련의 계획에 의해 연결해 가는 계열화는 형식적 완결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해체하고 열린 구조의 모듈 증감으로 양감을 대체시키는데, 여기에서 '계열화'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정민제의 경우, 바느질을 통한 천의 조립은 제각각 이미지가 되면서도 계열화(베란다, 쑥이네, 순자네 정원, 어쩌다 엄마 등등) 방식으로 장면의 조합을 이루어 전시된다. 정민제의 계열화 방식은 각각의 이미지로 존재하면서도 유동적인 열린 전체를 이루면서 서사가 형식이 되도록 하는 주요 방법이 되는 듯하다. 수세미 작업 이외 최근 왁싱 작업은 정민제 계열화 작업의 또 한 축을 이룬다. 이 작업은 천을 왁싱하여 다리미로 그 형상을 고정하는 방식으로서, 주관이 개입되면서도 상당부분 외부의 우연에 맡기는 작업이다. 숙달된 감각을 요하는 이 작업에서 정민제는 이제까지의 계열화 작업을 왁싱과 아이롱 드로잉으로 다시 혼합하고 새로운 분류로 계열화하고 있다. 단편과 조합의 계열화 방식은 전체에 포함될 수 없는, 그래서 고유성이 살아 숨 쉬는 그런 세계를 형성한다.

말의 온도

원로 작가에게 들었던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형상을 지울 때, 나는 형상과 서사를 고집했어. 내게 있어 형상과 서사는 뺄 수 없는 조형요소이거든.' 이 말을 되새기는 이유는 미술에서 서사의 의미 때문이다. 서사는 주제로도, 조형의 요소로도 그리고 정민제의 경우처럼 서사 자체를 형식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려는 경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서사를 제거한 작품에서 조차도 서사는 중요하게 그 지위를 유지 한다. 서사를 제거하는, 그래서 환영을 소거한 미니멀리즘조차도 서사의 부정(negation)으로써 그 형식을 유지한다. 자신의 전기적 사실을 작품에 적극 투영하면서도 형식적 완결성을 높여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대표작가로 자리매김한 에바 헤세처럼 정민제 역시 전체가 아닌 '비 전체(not-all)의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하면서 '서사가 형식이 되는 계열화의 작품'으로서 더욱 왕성한 작풍의 전개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매 순간 자신의 분석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정민제는 자신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관계 그리고 자신으로 수렴되는 모든 관계를 반추하며 관계를 요약할만한 언어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다.

'춤'으로만 만들다
실험과 파격의 장르, 댄스 뮤지컬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
뮤지컬 평론가
jwon@sch.ac.kr



Keith Roberts, John Selya, Elizabeth Parkinson & Ensemble

뮤지컬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있다. 바로 '춤'과 '노래' 그리고 '연기'가 종합적으로 버무려진 상업적 공연이라는 정의다. 언론지상의 관련 기사나 리뷰를 봐도 마찬가지다. 뮤지컬인데 춤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너무 춤만 나와 뮤지컬답지 못하다는 지적을 접할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요즘 세계적인 흥행 뮤지컬 중에서는 이런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는 작품들이 있다. 바로 '춤'으로만 극적 전개를 이루는 '댄스 뮤지컬' 장르다. 분명 제목에는 뮤지컬이라 써 있지만 심지어 노래를 부르지 않거나 아예 노래가 등장하지 않는 작품들도 많다. 얼핏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실험과 도전, 일탈과 파격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 예술의 법칙은 무대라해서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의 질서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무대적 반영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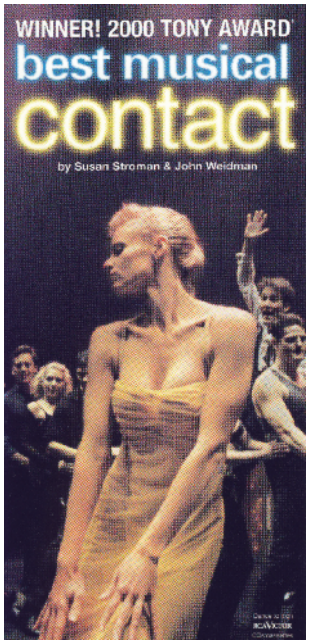
사실 댄스 뮤지컬은 이미 완성된 장르라기보다 아직도 다양하고 꾸준한 시도가 등장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실험이라 부르는 편이 더 적절하다. 댄스 뮤지컬이라는 말 못지않게 댄스 플레이(Dance Play)나 혹은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 댄스 플레이 뮤지컬이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한다.

요컨대, 춤이 이야기 전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되는 일련의 작품들을 통칭한다 할 수 있다. 보조적이거나 보완적이었던 요소가 전면으로 나서면서 새로움과 일탈의 재미를 만들어내는 경우다.

대표 주자로는 영국 태생의 안무가 겸 연출가인 매튜 본이 있다. 국내에서는 남자 백조를 등장시켜 인기를 모았던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Matthew Bourn's Swan Lake)'나 고전을 해체해 재구성했던 '호두까기 인형(Nutcracker)!' 또 영화가 원작이었던 '가위손(Edward Scissorhands)' 등의 내한 공연을 통해 마니아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특히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는 영국산 성장영화 '빌리 엘리어트(Billy Elliott)'의 마지막 장면에서 성인이 된 발레리노 빌리가 도약하는 장면으로 나와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작품인데, 덕분에 뮤지컬 버전이 등장하면서도 무대에서 이 장면이 다시 재연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었다. 국내에서의 인기로 모 가전회사의 TV 광고 이미지로도 활용된 적이 있을 정도다.

매튜 본의 작품들은 원작과 전혀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원래 발레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시발점이지만 매튜 본의 '호두까기 인형!'은 어두침침하고 지저분한 고아원이 이야기의 시작



이다. '백조의 호수'에서는 왕자의 죽음이 비극적으로 전개되며, '카 맨(Car Man)'에서는 아예 '카르멘(Carman)'과 전혀 다른 '포스트 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부류의 외도와 불륜 이야기가 등장한다. 처음 작품을 접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존의 발레 공연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새롭고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전개 방식이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실 세계 뮤지컬 극장가에서 '인접 장르간 융화'는 하나의 트렌드로 불릴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명 '무대 위의 크로스오버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이 같은 유행은 물론 이질적인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한 곳에 몰아넣음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매튜 본이 시도한 무용과 뮤지컬의 만남은 '댄스 뮤지컬' 혹은 '댄스 씨어터'(Dance Theatre)라는 독특한 장르를 잉태해 냈다.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뮤지컬의 대중성과 무용극의 재미를 한 곳으로 충돌시키는 신선한 실험이 빚어낸 예술적 산물이다.

물론 매튜 본만이 전부는 아니다. 요즘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여성 연출자이자 안무가인 수잔 스트로만의 '콘택트(Contact)'도 전형적인 댄스 뮤지컬의 성공사례다. 작품의 구조도 기존 뮤지컬 같은 한 두 개의 막이 아닌 세 개의 이야기들로 각각 꾸며진 에피소딕 구조를 띠고 있다. 공통점이 있다면 물론 모두 춤으로만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순간 무릎을 치게 하는 극적 반전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춤으로만 이뤄졌으니 단순하거나 지루할 것이라 예상했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스피디한 전개와 감춰진 뒷이야기를 찾아내는 재미로 유명하다. 우선 무대에 등장하는 춤의 종류가 다양하고 흥미롭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그네타기(wsing)'에서는 아크로바트가, 두 번째 에피소드인 '움직였니(Did you move)?'에서는 고전 발레가,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인 '만남(Contact)'에서는 스윙 댄스가 등장한다. 스토리 자체도 재미있지만, 저마다 다른 춤사위가 각각 다른 '맛'과 '멋'을 선보이는 것이 이채롭다. 수잔 스트로먼은 작품 제작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공연을 본 관객들이 밖에 나가 춤을 추게 만들고 싶어서"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의도가 적중했는지 정말 공연을 보고나면 대부분 춤추고 싶어지는 재미난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무용이 주를 이루니 화제가 되는 것도 뮤지컬 배우가 아닌 춤꾼들이다. 예를 들어, 브로드웨이 공연에서 오리지널 캐스트로 참여했던 무용수 카렌 젬바는 '움직였니?'에서 엄격한 남편의 눈을 피해 몰래 발레를 추는 중년 여인으로 나와 순수히 춤만으로 토니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대서양 건너 영국 웨스트엔드에서는 같은 역을 로열 발레단의 발레니라였던 사라 윌더가 맡아 화려한 발레 테크닉을 선보여 시선을 끌었다. 또, 세 번째 에피소드 '만남'에 등장하는 노란 원피스 차림의 여인은 뭇 남성들의 애간장을 끓게 하는 매력적인 자태로 유명한데, 미국 초연에서는 로켓 걸 출신의 데보라 예이츠가 발탁돼 금발 쪽진 머리에 늘씬한 몸매와 환상적인 춤 솜씨로 남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상형의 여인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우리나라에서도 라이선스 뮤지컬로 막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거침없는 행보와 실험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던 국립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 김주원이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원작의 아우리까지는 아니어도 춤 솜씨만으로는 가히 감탄을

자아내는 모습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고, 뮤지컬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거머쥐는 이색 광경을 연출해내기도 했다. 뉴욕 링컨센터에서 처음 막을 올렸던 '콘택트'는 1,174회의 연속 공연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이 공연장에 막을 올린 그 어떤 작품보다도 긴 공연기록이다. 물론 과감한 형식의 파괴가 대중적인 호응과 맞물려 이뤄낸 개가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래 대신 춤으로만 진행되는 형식이 뮤지컬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도 일었지만, 결국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 작품상을 거머쥐는 진기록도 수립했다. '콘택트'의 성공은 뮤지컬의 형식에 대한 이제까지의 고정관념을 일거에 날려버린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여성 안무가인 트왈라 타프가 초안과 안무, 연출을 맡았던 '무빙 아웃(Movin' Out)'도 돋보이는 사례다. 2002년 브로드웨이 46번가의 리처드 로저스 극장에서 막을 올린 이 작품은 미국의 국민가수라 불리는 빌리 조엘의 히트곡들을 기반으로 꾸며진 무대다. 제목 역시 빌리 조엘이 1977년 발표한 음반 '스트레인져(The Stranger)'에 실린 싱글 타이틀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60년대 미국 롱아일랜드의 한 마을로, 고교 동창생인 다섯 남녀가 베트남 전쟁을 전후로 얽히고설킨 사랑을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춤으로만 전개된다.

댄스 뮤지컬이 어디까지 진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지금도 꾸준히 다양한 실험과 접목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무용과의 접목만 있는 것도 아니다. '뒤섞임'의 미학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현대 대중문화의 도도한 물결이며,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이질적인 요소들의 조화 – 예술성과 상업성의 어울림,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의 병존은 바로 현대 뮤지컬계의 큰 흐름이다. 굳이 말하자면 복잡다단한 현대성의 한 단면인 셈이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 엔드 등 세계적인 뮤지컬가의 흥행작들이 단지 새로운 소재의 발굴 뿐 아니라 형식과 외형적인 진화를 거듭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실험과 도전의 역사가 바탕이 돼 가능해진 일이다.

국내에선 넌버벌 퍼포먼스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경우가 간혹 등장한다. 댄스컬이라는 이름으로 막을 올리는 작품도 있다. 몇 해전인가, 세종M씨어터에서 공연됐던 '문 나이트'가 그런 사례다. 80~90년대 히트 가요를 얼개로 춤을 엮어 놓은 창작 뮤지컬이다. 친숙한 멜로디의 노래에 당시 유행하던 춤을 덧입혀 이야기를 꾸려가는 재미난 실험을 시도했다. 아쉬운 것은 이도저도 아닌 정체성이다. 기왕 댄스 뮤지컬을 표방했다면 아예 파격적인 형식미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주크박스 뮤지컬로서의 재미를 추가하는 편이 좋았을 텐데, 이도저도 아닌 무대가 되고 말았다. 립싱크로 입모양을 따라하는 배우들의 모습은 어색하거나 안쓰러운 이미지만 낳았다. 뮤지컬에 대한 편견이 작품이 지닐 수 있는 미덕마저 가려버린 셈이다. 댄스 뮤지컬에 대한 장르적 이해나 특성에 대한 연구가 깊지 않아서 생긴 문제점이다. 문화산업에서는 새로운 형식미가 흥행 요인이 되는 경우를 흔히 만날 수 있다. 경직된 사고와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에서도 만나보고 싶은 도전이자 실험이기도 하다. 댄스 뮤지컬의 세계적인 유행이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시행시기 : 연중

사업개요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보험기간 : 기본 1년, 장기계약(2년, 3년) 가능
○상품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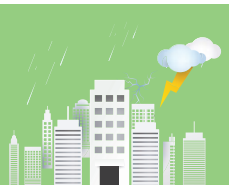
구 분	가입대상	보상형태	가입방법	지원규모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정액	개별·단체	(일반) 52.5~92% (차상위) 75~92% (기초수급) 86.2~92%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택	정액	지방자치단체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택(공동·단독)	실손비례	개별·단체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온실	실손	개 별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실손	개 별	59%(국비 50%, 지방비 9%)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02-2100-5103 ~ 5107)
○울산광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229-4156)

연간 보험료 & 보험금 예시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상가

구 분	연간 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 액	127,500원	1억 원
	정부지원	75,300원	
	자 부 담	52,200원	
임차인 (재고자산)	총 액	70,300원	5천만 원
	정부지원	41,500원	
	자 부 담	28,800원	

공장

구 분	연간 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 액	162,700원	1.5억 원
	정부지원	96,000원	
	자 부 담	66,700원	
임차인 (재고자산)	총 액	56,600원	5천만 원
	정부지원	33,400원	
	자 부 담	23,200원	

주택

구 분	연간 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 액	61,200원	7천 2백만 원
	정부지원	32,100원	
	자 부 담	29,100원	

* 8천만 원, 90% 보장 (80㎡) 기준

온실

구 분	연간 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 액	347,900원	964만 원
	정부지원	182,600원	
	자 부 담	165,300원	

* 1,071만원, 90% 보장(철재파이프 하우스 H형, 1천㎡)기준

*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례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켰어요!

주택

지급보험금	**257,400,000원**
피 해 장 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피 해 내 용	지진에 의한 주택 파손 (반파)
납입보험료	정부지원 **423,160원**
	자부담 연간 **190,400원**

※ 보험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반파 6.5백만원

소상공인 상가·공장

지급보험금	**130,000,000원**
피 해 장 소	경상북도 영덕군
피 해 내 용	태풍 '미탁'에 의한 건물 파손
납입보험료	정부지원 **234,300원**
	자부담 연간 **229,400원**

※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 미지급

10 2020

공연가이드

10.07(수)	20:00	[무용]	여정을 잇다	소공연장	시립예술단
10.08(목)	20:00	[무용]	여정을 잇다	소공연장	시립예술단
10.11(일)	15:00	[대관]	제5회 서아름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동화 아라비안나이트>	소공연장	서아름(개인)
10.13(화)	19:30	[대관]	남구 구립교향악단 제74회 정기연주회	대공연장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10.13(화)	19:30	[대관]	울산콘서트콰이어 제10회 정기연주회	소공연장	울산콘서트콰이어
10. 14(수)	미정	[기획]	뒤 란 (미정)	소공연장	문화예술회관/ubc울산방송
10.15(목)	19:30	[합창]	시립합창단 기획공연〈여행콘서트〉	소공연장	시립예술단
10.16(금)	20:00	[교향]	교향악단 정기공연 마스터피스	대공연장	시립예술단
10.17(토)	17:00	[대관]	아크앙상블 7번째 항해 ˝ 만원의행복 ˝	소공연장	Ark Ensemble(아크앙상블)
10.18(일)	19:30	[대관]	울산 열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대공연장	울산 열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0.18(일)	19:00	[대관]	브리오첼리 제2회 정기연주회	소공연장	브리오첼리
10.21(수)	19:30	[대관]	아이노스합창단 17회 정기연주회	소공연장	아이노스합창단
10.22(목)	미정	[기획]	뒤 란 (미정)	소공연장	문화예술회관/ubc울산방송
10.23.(금)	미정	[기획]	뒤 란 (미정)	소공연장	문화예술회관/ubc울산방송
10.24(토)	17:00	[대관]	더스트링스 챔버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대공연장	더 스트링스 챔버 오케스트라
10.24(토)	10:00	[대관]	제30회 전국 무용 경연대회	소공연장	사)한국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
10.25(일)	19:00	[대관]	2020 울산YMCA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소공연장	울산YMCA소년소녀합창단
10.27(화)	19:00	[대관]	제40회 울산예술제 서막식	대공연장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10.28(수)	19:00	[대관]	제40회 울산예술제 울산영화인협회	소공연장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10.29(목)	19:30	[대관]	제40회 울산예술제 울산음악협회	소공연장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10.31(토)	19:00	[대관]	제40회 울산예술제 울산문인협회	소공연장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공연일정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2020 전시가이드

9. 1. ~ 12. 9. (100일간)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장소 상설전시장 (갤러리 쉼)	주최 울산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참여 작가 기증작품 총 44점(미술, 사진 등) 전시
10. 15. ~ 10. 24. (10일간) 초청기획전시「뉴 미디어 樂」	장소 제1전시장	주최 울산문화예술회관	영상, VR, 인터렉티브, 설치 등 미디어작품 총 20점
10. 13. ~ 10. 18. (6일간) 제42회 울산여류작가회전	장소 제2·3전시장	주최 울산여류작가회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기념하여 '태화강 정원'을 주제로 제42회를 맞이하는 울산여류작가회원들의 미술작품 등 30여점 전시
10. 13. ~ 10. 18. (6일간) 경송 신정아 개인전	장소 제4전시장	주최 개 인	선현들의 주옥같은 말씀들과 도덕경, 채근담 등의 좋은 글귀들을 대상으로 한문오체(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와 한글서체로 완성된 서예작품 40여점 전시
10. 20. ~ 10. 25. (6일간) 제19회 미사랑 작가회전	장소 제2전시장	주최 미사랑작가회	회화 장르를 중심으로 한 시각적 내용을 바탕으로 울산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내포한 작품 80여점 전시
10. 20. ~ 10. 25. (6일간) 울산인물작가회 정기전	장소 제3전시장	주최 울산인물작가회	인물을 소재로 인물의 시간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각자 다른 표현, 다른 느낌으로 구성된 인물화 작품 50여점 전시
10. 20. ~ 10. 25. (6일간) 제9회 울산예술사진 총연합회전 〈제40회 울산예술제〉	장소 제4전시장	주최 울산예술사진총연합회	흑백바탕에 나신(裸身)의 일부를 강조하여 자연생태와 어우러진 다양한 포즈를 취한 누드 촬영 기법의 사진작품 50여점 전시
10. 27. ~ 11. 1. (6일간) 울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장소 제1·2·3·4전시장	주최 울산예총연합회	제40회 울산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전시로, 울산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의 1년간의 창작활동을 담아낸 사진작품 240여점 전시

※ 전시일정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

10
2020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쉼터앞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4	5	6
11 ● 제5회 서아름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동화 아라비안나이트〉 15:00	12	13 ● 남구 구립교향악단 제74회 정기연주회 19:30 ● 울산콘서트콰이어 제10회 정기연주회 19:30
18 ● 울산 열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19:30 ● 브리오첼리 제2회 정기연주회 19:00	19	20
25 ● 2020 울산YMCA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26	27 ● 제40회 울산예술제 서막식 19:00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WED	THU	FRI	SAT
	1	2	3
7 ● 여정을 잇다 20:00	8 ● 여정을 잇다 20:00	9	10
14 ● 뒤 란 (미정)	15 ● 시립합창단 기획공연 〈여행콘서트〉 19:30	16 ● 교향악단 정기공연 마스터피스 20:00	17 ● 아크앙상블 7번째 항해 "만원의행복" 17:00
21 ● 아이노스합창단 17회 정기연주회 19:30	22 ● 뒤 란 (미정)	23 ● 뒤 란 (미정)	24 ● 더스트링스 챔버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17:00 ● 제30회 전국 무용 경연대회 10:00
28 ● 제40회 울산예술제 울산영화인협회 19:00	29 ● 제40회 울산예술제 울산음악협회 19:30	30	31 ● 제40회 울산예술제 울산문인협회 19:00

전시일정

10
2020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제3전시장
- 제4전시장
- 갤러리 쉼
- 야외전시장

※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4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5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6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1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12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13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제42회 울산여류작가회전 ● 경송 신정아 개인전
18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제42회 울산여류작가회전 ● 경송 신정아 개인전 ● 초청기획전시 「뉴 미디어 樂」	19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초청기획전시 「뉴 미디어 樂」	20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초청기획전시 「뉴 미디어 樂」 ● 제19회 미사랑 작가회전 ● 울산인물작가회 정기전 ● 제9회 울산예술사진 총연합회전
25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초청기획전시 「뉴 미디어 樂」 ● 제19회 미사랑 작가회전 ● 울산인물작가회 정기전 ● 제9회 울산예술사진 총연합회전	26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27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울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WED	THU	FRI	SAT
	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2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3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7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8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9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10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14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제42회 울산여류작가회전 ● 경송 신정아 개인전	15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제42회 울산여류작가회전 ● 경송 신정아 개인전 ● 초청기획전시 「뉴 미디어 樂」	16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제42회 울산여류작가회전 ● 경송 신정아 개인전 ● 초청기획전시 「뉴 미디어 樂」	17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제42회 울산여류작가회전 ● 경송 신정아 개인전 ● 초청기획전시 「뉴 미디어 樂」
2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초청기획전시 「뉴 미디어 樂」 ● 제19회 미사랑 작가회전 ● 울산인물작가회 정기전 ● 제9회 울산예술사진 총연합회전	22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초청기획전시 「뉴 미디어 樂」 ● 제19회 미사랑 작가회전 ● 울산인물작가회 정기전 ● 제9회 울산예술사진 총연합회전	23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초청기획전시 「뉴 미디어 樂」 ● 제19회 미사랑 작가회전 ● 울산인물작가회 정기전 ● 제9회 울산예술사진 총연합회전	24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초청기획전시 「뉴 미디어 樂」 ● 제19회 미사랑 작가회전 ● 울산인물작가회 정기전 ● 제9회 울산예술사진 총연합회전
28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울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29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울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30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울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31 ● 올해의 작가 기증작품전 ●● 울산사진작가협회 회원전

울산지역 **공연 & 전시 정보**

중구문화의전당

2020 조윤범의 렉쳐콘서트 작곡가 시리즈
슈베르트

2020.10.13.(화) 19:30
전석1만원(초등학생 이상관람가)

2020 기획전시 박구환 작가 초대展
마음으로 찍은 풍경

2020.10.15.(목)~10.31.(일)
무료

영상으로 만나는 명작무대
「씨네스테이지」 앙코르 스페셜

2020.10.14.(화)~10.17(토) 19:00
무료

2020 중구문화의전당
가을방학X 최낙타 콘서트

2020.10.17.(토) 17:00
전석1만원(초등학생 이상관람가)

2020 중구문화의전당 아츠홀릭 판
싱어송라이터 조원선 콘서트

2020.10.22.(목) 19:00
전석1만원(초등학생 이상관람가)

2020 중구문화의전당 어린이 명작무대 II
명작발레 헨젤과그레텔

2020.10.24.(토) 14:00/17:00(2회)
전석2만원 (48개월이상관람가)

2020 중구문화의전당
최정원 뮤지컬 갈라쇼

2020.10.26.(월) 19:30
전석1만5천원(초등학생 이상관람가)

북구문화예술회관

제17회 무용 아트 페스티벌

2020.9.25.(금)~10.30.(금)
유튜브 내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 채널

현대예술관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展

2020.7.30.(목)~11.1.(일)
일반1만원 / 중·고등학생 이하 8천원

울주문화예술회관

굿바이, COVID-19
Drive-in 울주시네마

2020.10.9(금)~10.11(일) 19:00
무료

코믹 마샬아츠 퍼포먼스
점프

2020.10.15(목) 13:30, 20:00
일반1만5천원 / 단체1만원

※ 공연 및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문의 052)226-8242

롯데호텔 울산 / 롯데시티호텔 울산
남구 삼산로 282 / 052) 960-4300
표준 객실요금의 15~50% 할인된 제휴요금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 문의바람)
유료회원

신라 스테이
남구 삼산로 200 / 052) 901-9000
표준 객실요금의 60~70% 할인된 제휴요금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 문의바람)
유료회원

스타즈호텔 울산
남구 남중로 65 / 052) 922-4000
표준 객실요금의 50~70% 할인된 제휴요금
식당 · 베이커리 10%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 문의바람)
유료회원

머큐어 앰배서더 울산
북구 강동산하2로 7 / (052-980-1101)
표준 객실요금의 60~70% 할인된 제휴요금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문의 바람)
유료회원

밀레(달동점)
남구 삼산로 151 / 052) 260-0022
정상가의 10%할인(용품 제외)
유료회원

라비타(LAVITA)
남구 월평로 197 / 052) 245-1111
정상가의 10~20%할인
유료회원

㈜ MH컨벤션 (구) 목화웨딩홀
남구 삼산로 226 / 052) 260-5555
웨딩패키지 20% 할인, 사진촬영 50% 할인
뷔페 인당 2,000원 할인(웨딩 뷔페 인당 1,000원 할인)
유료회원

소풍가
신정동 극동스타클래스 1층 상가
052) 275-3579
이용금액 5%할인
유료회원

디엘리 커피
남구 신정로33번길 30 / 010-8348-4800
음료 5%할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제외)
유료회원

울산진산면세점
중구 번영로 363 / 052) 281-5555
면세 판매가에서 18%할인
유료회원

"더 많은 혜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유료회원 가입 안내

가입방법

회원기간 1년, 3년, 5년, 10년

회원종류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료회원 전환(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가입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052) 275-9623~8, http://ucac.ulsan.go.kr

구 분	가입기준	연 회 비				혜택인원
		1년	3년	5년	10년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50,000원	80,000원	150,000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0,000원	25,000원	40,000원	75,000원	1명
가족회원	한가족	40,000원	100,000원	160,000원	300,000원	4명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0,000원(1인)	25,000원(1인)	40,000원(1인)	75,000원(1인)	가입인원

유료회원혜택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S FRIEND) 우송
각종 공연정보 및 예매일 문자 안내
각종 공연·전시 할인 제공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란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적립률 공연별로 상이, 유효기간 5년)
※대관공연 적립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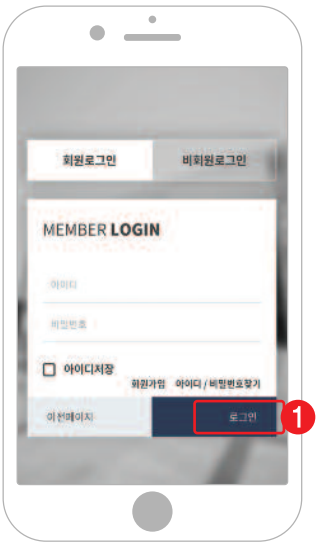
- 회관 주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5%, 회원가입비의 10%
-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회관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시 사용가능

협약점 이용 시 특별혜택 제공

협약점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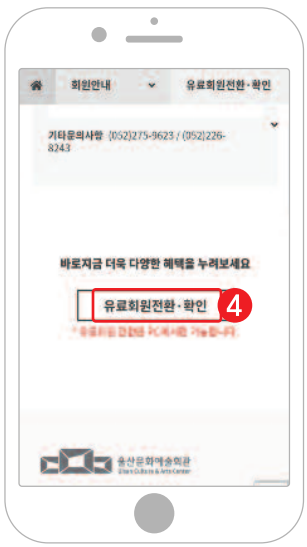
스마트폰 사용자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회원안내]
유료회원전환·확인 메뉴 들어가기



하단 유료회원전환·확인 클릭

유료회원 여부 확인

간단히 알아보기

1.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2.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3. 회원안내
   유료회원전환·확인 메뉴 들어가기
4. 하단 유료회원전환·확인 클릭
5. 유료회원 여부 확인

유의사항
* 유료회원께서는 하단의 이용방법을 숙지 후 협약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를 경우 회관 052)226-8242 으로 문의바랍니다.
* **이용가능 회원종류** : 일반, 가족, 청소년, 단체회원
* 캡쳐화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스마트폰 미 사용자

회관 방문 후 회원증 발급 및 회원증 사용(발급비용 없음)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참여작가

권선+김해인+노진아+박종영+이이남+이재형+이현정+조세민+홍성대

NEW 미디어 樂

2020.10.15.(목)-10.24.(토) 10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